

『박소촌화』 所載 과거담의 특징과 의미

이 병 직*

차 례

- | | |
|-------------------------|--------------------------|
| 1. 들머리 | 4. 『박소촌화』 소재 과거담의 의의와 한계 |
| 2. 『박소촌화』에 수록된 과거담과 소재원 | 5. 맺음말 |
| 3. 『박소촌화』 所載 과거담의 특징 | |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박소촌화』 소재 과거담의 특징과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이동운은 과거시험을 치른 직접 경험에서부터 집안의 친인척, 노론 학맥의 문인들, 문헌 및 구전 등으로 수용한 것에 이르기까지 과거에 관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다양한 전승경로를 통해 『박소촌화』에 수록하였다.

『박소촌화』에는 과거시험의 출제과목, 시험방법, 시험제도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비롯하여 회방연과 생진계, 풍수, 과거 공부에 관련된 갖가지 사회풍습이 소개되어 있다. 이를 통해 18세기 과거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박소촌화』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과거담 일화는 역사적으

* 부산 금성고등학교 교사

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아 그 존재의의를 부각시켰다. 일부 일화는 야담의 면모를 갖추고 있어, 일화에서 야담으로의 변모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도움이 된다. 이동윤은 과문절도, 매문, 대리답 안작성, 정실관계로 부정합격을 기획하는 행위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과거부정과 폐단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과거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마련하지 못했지만 과거부정에 얽힌 다양한 사례를 남김으로써 후세의 경계를 삼은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동윤이 남긴 과거담은 이전의 문헌 설화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시대 윤기가 남긴 과거 관련 글과 비교할 때 내용의 깊이나 짜임새는 부족하지만 다양성과 서사적 이야기를 갖추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박소촌화』 소재 과거담은 조선조선비들의 과거에 대한 미시생활사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 과거, 과거담, 박소촌화, 이동윤, 윤기, 생활사

1. 들머리

현세적 삶을 중시하는 조선조 선비들에게 있어 과거는 입신양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관문이다. 과거시험은 관료선발이라는 일차적인 목적을 넘어서 그 시대의 사회적 기대 및 교육과의 높은 상관성에서 언제나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조선조 문인들은 과거를 통해야만 고급 관료로 진출하거나 지역 사회에서 양반 행세를 제대로 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웬만한 처지에 놓인 양반이라면 과거시험에 응시하였고, 급제를 위해 인생을 걸거나 때로는 과거 때문에 일생을 망친 사람도 있었다. 이에 따라 과거에 관한 술한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하여 법규집,

문집, 설화집 등 각종 문헌에 폭넓게 수록되어 있다. 이 글에서 살펴 볼 『박소촌화』는 18세기 후반에 기록된 개인의 잡록집으로 여기에도 과거 관련 내용이 상당수 수록되어 있다.

지금까지 과거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 성과가 이루어져 왔는데, 한국사 부문이 대부분이고, 교육사·행정학·한문학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¹⁾ 최근 과거시험 연구의 현황을 검토한 황위주 교수는 과거에 관한 논문이나 저서가 300여 편에 이른다고 하였으며, 그간의 연구성과를 제도, 응시자, 과거부정, 교육제도, 시권과 과문, 생활문화 일반에 관한 것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²⁾ 그중 문학 관련 논문은 17편으로 시권과 과문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산문문학에 대해서는 논의가 드문 실정이다. 과거설화를 대상으로 몇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³⁾ 박문수 설화나 숙종대왕 설화가 대부분이고 문헌설화나 야담으로까지 논의가 확대되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임완혁 교수는 서사문 속에서 과거 관련 이야기를 폭넓게 조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연구의 대상을 산문으로 확대하고 있다.⁴⁾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과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깊어졌으나 문학의 경우 과거의 오랜 연원에 비해 그 논의 수준은 다양하지 못한 실정이다. 아마도 과거시험이 정해진 양식과 틀이 있는 대단히 실질적인 글이므로 과문 자체에 흥미로운 내용이 개입되지 못한다다가 다양한 이야깃거리가 없기 때문에 관심이 덜 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최근 일기

-
- 1) 한국사 부문은 차미희, 「조선시대 문과 연구의 동향과 전망」(『조선시대 과거시험과 유생의 삶』, 이화여대출판부, 2012)에서, 교육사 부문은 김정용, 『과거제도와 한국 근대교육의 재인식』(교육과학사, 2003)에서 각각 연구사를 검토한 바 있다.
 - 2) 황위주, 「과거시험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 과거문화의 새로운 조명(1)』, 제104차 대동한문학회 전국학술대회, 2013, 11-34쪽.
 - 3) 이범수, 「과거설화 연구 -특과제형을 중심으로-」,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 이영미, 「숙종 설화 연구」,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 4) 임완혁, 「서사문 속의 과거 이야기 -궁핍한 유생의 고군분투기-」, 제104차 대동한문학회 전국학술대회, 2013, 145-181쪽.

문이나 문헌의 발굴을 통해 과거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연구의 텍스트로 삼을 만한 적절한 자료가 많지 않았던 점도 과거에 대한 문학연구가 소홀했던 이유가 아닌가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거담과 관련하여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이동운의 『박소춘화』를 대상으로 텍스트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과거담을 하나로 모아 그 특징을 부각시켜 과거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⁵⁾ 글의 방향은 『박소춘화』에 수록된 과거담을 일별하고, 이동운이 과거담의 소재적 연원을 어디서 찾았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이어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과거담의 특징을 검토하고, 『박소춘화』 소재 과거담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그 의의와 한계에 대해 점검하는 순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2. 『박소춘화』에 수록된 과거담과 소재원

『박소춘화』의 613화 중에서 과거를 소재로 하였거나 과거 관련 내용은 50여 편으로 그 양이 적지 않다.⁶⁾ 관련 인물과 이야기의 성격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⁷⁾

-
- 5) 『박소춘화』에 대해서는 저작연대, 작가의식, 텍스트의 구성과 서사방식, 추노담·사회담을 비롯한 야담의 유형 연구나 개별 작품론 등 다채롭게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과거에 대해서는 아직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의 연구 성과는 조선옥, 『『박소춘화』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2008을 참조.
 - 6) 이 글에서 ‘과거담’이라는 용어는 ‘과거’를 소재로 한 사실적인 글과 허구적인 이야기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50여 편의 과거담 중에는 문인의 인품이나 성격을 드러내는 일화 속에 과거 이야기가 에피소드로 포함된 것도 있다. 관점에 따라 과거 관련 글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숫자에는 가감이 있을 수 있다.
 - 7) 『박소춘화』(서울대 규장각소장본)에는 개별 작품의 구체적 제목이 없다. <표>의 번호는 조선옥, 앞의 논문 부록(179-184쪽)에 제시된 『박소춘화』 권별 수록 작품 일람표에 의거하였다. <표>에 관련 인물이 없는 것은 과거제도나 과거부정에 관한 사회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특정 인명이 빠진 것이다. 이하 작품 인용은 ‘권

권/화	관련 인물	성격	권/화	관련 인물	성격
1-96	박성석	일화	1-105	채유후	일화
1-119	이광적, 이기익	회방연 풍속	1-121	윤봉조, 이수	과거습속비판
1-122	조관빈	일화	1-150	오원, 황재	과거의 공정함
1-177	권업	일화	2-5	이재	일화
2-35	민백창	과거부정	2-36	숙종, 영조	제도 변경
2-37	오달운, 소응천	일화	2-38	이담, 허증	알성례 풍속
2-39	영조, 이문원	면시제도	2-40		과거폐단
2-42		생진계	2-43		과거폐단
2-44	신의, 남옥, 박사호	과거부정	2-45	이종성, 김성현	과거폐단
2-46	이태좌, 이종성	과문풍자	2-47		과거폐단
2-48	안석경	일화	2-81	엄택주(이만강)	과거부정
2-96	신광수	일화	2-97	이원만	일화
2-98	윤광태, 조영승	세태	2-99	우치범	일화
2-100	김낙수	과문절도	2-101	이이	일화
2-102	한원진	일화	2-103	이동운	과육 경계
2-106	최위	만학	2-107	이약채	만학
2-127	신유한	일화	2-133	조관빈	일화
2-167	김헌행	일화	2-168	김우행, 김순행	지조와 신의
2-169	이담	일화	2-170	홍하적	일화
2-173	이철환	능력	2-188	정익하	과거폐단
2-207	조창래	풍수	3-3	최수원, 조우규	정쟁
3-12		강경제도	3-40	이기익	일화
3-41	이시원	일화	3-68	이인징, 이동옥	과거부정
3-69	서해조, 이봉령	일화	3-70	이성휘	기묘과육
3-149	영유, 윤순, 서명균	일화(야담)	3-196	성종	신하발탁담
3-206	황일하	일화(야담)	3-207		제도
3-213	김응순	일화(일화)			

<표>에 제시된 것처럼 과거 관련 문인 일화가 가장 많으며, 과거부정

수, 작품 번호, 작품 시작의 몇 글자(예시 : 1-119화 <李判書光迪>)'를 적도록 하였다.

에 따른 폐해, 풍속이나 세태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표>에는 50여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대개 영조시대를 전후하여 활동하였으며,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상당수이다.⁸⁾ 이동운(1727-1809)의 활동시기가 주로 영조시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관련 인물이 작자와 동시대에 활동하였거나 그와 아주 가까운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이동운은 과거 이야기를 어디서 획득하여 『박소촌화』에 수록하게 되었는가. 작자의 생애와 『박소촌화』의 과거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이야기의 소재원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먼저 이동운은 자신의 과거 체험을 기록하였다. 젊은 시절 그는 생질 집에 거처하면서 과거시험을 준비하였고, 벗들과 산사에 모여 과거 공부를 한 경험이 있다.⁹⁾ 2-97화 <李源萬>은 이동운 자신의 과장 체험담이자 이원만에 관한 일화이다. 이동운은 이원만과 함께 과거시험을 치렀고, 이 과정에서 그의 높은 신의를 목격하고 그를 기리는 의도로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이동운은 자신의 직계 조상으로부터 방계 친인척에 이르기까지 집안 사람의 과거담을 수용하여 『박소촌화』에 기록하였다. 3-33화 <忠肅公世比之劉光祿>에는 5대 조부 이형운이 종친사에서 두 번이나 장원하였다는 언급이 있으며, 1-119화와 3-40화에는 증조 이기익의 과거담이 소개되어 있다. 특히 1-119화 <李判書光迪>에서 이기익은 판서 이광적과 더불어 회방연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¹⁰⁾ 회방연은 과거에 급제한 지 60주년이 됨을 기념하는 잔치이다. 숙종이 회방자에게 쌀·고기·배·비단 및 꽃을 하

8)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한국인물대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중앙 M&B, 1999)을 대상으로 위 <표>에 등장하는 인물을 검색할 경우 인적 사항과 그 소개가 절반 정도 나타난다. 그 중에서 정치나 문화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9) 이동운, 『敏齋遺稿』人, 「行錄」, <亡室贈淑夫人豐川任氏行錄(後贈貞夫人)>. 余少時留甥館, 或數月半歲間, 多會友山寺, 做公車業.

10) 1-119화 <李判書光迪>. 李判書光迪與我曾王考參判府君同庚, 而二十九登第, 肅廟丙申行回榜宴, … 大抵, 及第回榜, 國朝以來, 所罕有也. 肅廟賜宴需, 伊日賜花宜醞, 又賜太常雅樂.

사하였기에,¹¹⁾ 당사자는 물론 가문으로서도 영광스럽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3-41화는 조부 이시명의 과장에서 경험담이고, 2-107화는 집안 할아버지 이기경의 체험담이며, 3-68화는 동명이인 때문에 화를 입은 재종숙 이동옥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1-177화는 외가 인물 권업에 관련된 일화이고,¹²⁾ 2-100화는 외종형 김낙수에게 들은 과문절도 이야기이다. 이와 같이 이동윤은 집안의 직계, 방계, 외가 등 친인척으로부터 과거 관련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박소촌화』 곳곳에 기록해 두었다.

또한 이동윤은 자신의 스승과 그 주변 인물의 과거담을 기록하였다. 이동윤은 권상하의 제자인 한원진, 윤봉구, 김교행 등 노론 학자들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이들의 자제 및 주변 문인들과 폭넓게 교류하였다.¹³⁾ 따라서 과거 관련 문인 일화에는 이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 편이다. 2-102화는 한원진의 과거 대책문 작성에 관한 일화이고, 2-167화는 김헌행의 정직함에 관한 내용이며, 2-168화는 스승 김교행의 동생인 김우행과 김순행의 절의에 관련된 이야기이다. 이밖에도 동향인에 관한 이야기, 언전으로 전승되는 이야기, 각종 문회에서 들은 이야기 등을 『박소촌화』에 기록하였다. 예컨대, 2-106화, 2-107화, 3-30화 등은 지역 문인에 관한 이야기이며, 3-149화는 영남 선비의 과거와 벼슬살이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윤가의 인척에게서 들었다고 하였으며, 3-196화는 여항에 諺傳되던 임금의 신하발탁담이라는 야담을 수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동윤은 과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을 비롯하여 집안의 친인척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스승과 주변 문인들과의 교류 및 학맥 속에서 전승되는 이야기, 문헌 및 구전으로 수용한 과거에 관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박소촌화』에 수록해 두고 있다.

11) 숙종실록 58권, 42년(1716) 9월 14일 4번째 기사 및 9월 16일 1번째 기사 참조.

12) 권업은 김시발의 외삼촌이다. 김시발의 딸은 이동윤의 부친 이후제의 첫째 부인 이므로 이동윤은 외가 집안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었던 셈이다.

13) 이병직, 「이동윤의 사상과 『박소촌화』의 저작 동인」, 『문창어문논집』 제39집, 2002, 52-60쪽.

3. 『박소촌화』 所載 과거담의 특징

1) 제도와 풍습의 소개

『박소촌화』에는 감제, 남성시, 승보시, 절제시, 감시, 면시, 삼일제, 반시 등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과거시험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과거 제도와 풍습을 몇 가지로 나누어 소개한다.

첫째, 시험과목과 제도에 관한 소개이다. 과거를 시행하면서 시험과목이나 제도가 바뀌게 된 사연을 서술하거나 해당 제도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2-36화 <肅廟朝大科>는 대과와 소과에서 치르던 시험 과목의 구분 때문에 시골 사람이 부당하게 차별을 받아 영조가 그 구분을 없앴다는 내용이다. 숙종대 대과에서는 표와 책문으로만 사람을 뽑고, 시부를 공부한 사람은 소과에만 응시하였다. 그래서 小科儒·大科儒의 구분이 있었고, 서울 유생은 표책유로, 시골 유생은 부책유로써 응시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영조가 잡저에 있을 때 시골유생이 과거에 응시하여 표문에 백지만 제출하고 눈물을 뿌리면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쌍하게 여겨, 즉위 원년(1725)에 정시를 시행하면서 賦를 출제하였다는 것이다. 2-39화 <癸未引生進>은 영조 39년(1763)에 실시되었던 면시와 관련이 있다. 면시는 차술·대술 등 부정을 막기 위해 실시된 면접시험의 일종이다. 이때 출제되었던 것이 ‘경회루’ 詩와 ‘간의대’ 賦였는데, 그 소재가 지나치게 편벽된 모양이었다. 그래서 거자들이 그 존재 의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시험답안을 작성하였고, 임금 앞에서 면시를 치렀다. 면시는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는지 영조는 이후 면시를 중단하고 만다.¹⁴⁾ 면시 제도의 장단점은 모두 있겠지만 『박소촌화』에서는 면시가 시행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은 사례라 할 것이다. 3-12화 <監試發解者>는 강경과 관련된 내용이다. 감시에

14) 2-39화 <癸未引生進>. 後上有教曰: “予暮年不欲行齷齪之政也.” 遂不復面試焉.

합격한 자는 『소학』과 『가례』의 講에 임해서 粗 이상이라야 회시에 가도록 허락하는 것이 고례인데, 강에서 떨어진 자는 회시에 나가지 못하거나 과거에서 낙방하므로 집집마다 글 외는 소리가 자자했다고 한다. 경전을 외우는 것이 학문이나 인격 도야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출세를 위한 수단이 되는 세대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3-207화 <國子監試>는 국자감시에서 출제하던 시험 과목에 관한 내용이다. 국자감시는 五經義와 四書疑로써 선비들을 시험하였는데, 經義는 오경 중 한 구만을 글제로 삼아 詞章의 선비를 취하였고, 書疑는 사서 중에서 의심스러운 뜻을 가려서 질문하여 經學의 선비를 선발하였기에 사람들은 각자 그 장점에 따라 과거에 응시하였다는 내용이다.¹⁵⁾

둘째, 과거와 관련된 사회풍습을 소개한 내용이다. 2장에서 언급한 회방연을 비롯하여 창방의, 은문연, 생진계, 풍수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하겠다. 2-38화 <監試會試>는 과거합격자를 발표하는 창방의 행사와 급제자를 위해 베풀어주던 은영연을 비롯하여 사은례, 알성례, 은문연을 소개한 글이다. 다음 글은 생진계라는 다소 생소한 풍속 소개이다.

혹 이르기를 지방에 생진계라는 것이 있는데, 재물을 많이 모아 글 잘하고 잘 쓰는 사람을 길러 온갖 종류의 기교를 사용하여 반드시 합격하도록 기약하는데, 공거에 나가면 차례로 성균관에 오르니 가히 사람의 기교가 조화를 빼앗은 것이라 할 만하다. 오경의에 대해서는 곧 계 중에서 잘 지은 것으로 차례를 엮고 구구마다 표제를 만들어 매번 과거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니 더욱이 합격되지 않음이 없었다고 한다.¹⁶⁾

15) 3-207화 <國子監試>. 國子監試, 以五經義及四書疑試士. 蓋經義則只以五經中, 一句爲題, 多取詞章之士, 書疑則專採四書中疑義設問, 多取經學之士. 人各從其所長, 而業應舉.

16) 2-42화 <或曰遐方有生進楔>. 或曰, 遐方有生進楔, 多畜貨財, 養能文善書者, 百般用巧, 期於必中, 而及赴公車, 次第登上庠, 可謂人巧之奪造化矣. 至於五經義, 則楔中以名作編次, 而句句爲題, 每科必逢, 尤無不中者云.

‘생진’은 생원시와 진사시의 줄임말인 듯한데, 소과에 해당하는 이 시험의 합격을 위해 지방에서는 계까지 조직하였다는 것이다. 생진계의 운영 자금으로 과문을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사람을 확보하였고, 이들은 일종의 모범답안을 작성하여 과거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과거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과거합격을 위해 개인을 넘어 집단의 공동체까지 동원되던 흥미로운 사회의 한 단면이라 하겠다. 2-207화 <定州人登文科>는 풍수지리와 관련된 내용이다. 정주 사람으로 문과에 급제한 사람이 전후로 배출되자, 향교가 좋은 터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하였다고 하여 풍수 탓으로 돌리는 일을 소개한 것이다. 짤막한 내용이지만 특정 지역에서 문과에 급제한 사람이 연거푸 나오자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모양이다. 과거 합격이 쉽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초월적 세계나 비현실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였는데, 과거 합격을 예언하는 꿈이나 풍수에 대한 관심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다만, 『박소촌화』에는 이러한 사례가 많지 않은데, 현실적인 사고를 중시한 작자의 사유태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

셋째, 과거 공부와 관련된 풍속 소개이다. 과거 준비를 위해 山寺에서 공부하던 이야기를 비롯하여 발분의 노력하는 모습, 공부에 대한 중압감을 떨쳐버리지 못해 가출한 이야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산사에서 공부하는 모습은 문인들의 한가한 모습을 담고 있다. 예컨대, 1-122화 <悔軒趙判書>에서 조관빈이 산사에서 벗들과 모여 공부를 한다고는 했지만 매일 떠돌고 놀아 한 편도 짓지 못했다는 것이나, 2-170화 <湖鄉有洪夏績>에서 선비들이 산사에 모여 科賦를 짓고 닭을 삶고 술을 데워 먹으면서 대를 의논하였다는 사실에서 이런 면모를 짐작할 수 있다.

발분의 노력 끝에 과거에 합격한 사례는, 2-106화 <崔曄瑞山寒族>의 최위, 2-107화 <李若采>의 초계 토박이 이약채, 3-30화 <余自壬午歲>의 덕산 무인의 후예 황형 등을 들 수 있다. 2-106화의 최위를 예로 든다. 그는 온 집안이 농사에 힘써 글을 배우지 못했는데, 成童이 되어 떨

나무를 지다가 갑자기 공부할 마음이 생겨 도망하여 절에서 걸식하면서 천자문을 공부하였다. 그 아버지가 찾아와서 다시 나무하게 했지만 번번이 도망하여 금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최위는 통감 등을 배워 문리가 크게 나아졌고, 성균관에 올라 증광시에서 대책으로 급제하고 관직이 별제에 이르렀다는 내용이다. 최위, 이약채, 황형 등은 대개 평민 또는 몰락 양반으로서 역경을 딛고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한 자수성가형 인물이다. 서술자인 이동운은 “凡民이 俊秀하나 비록 글이 대단하지는 않지만 크게 일어난 사람이라 할 것이다!”¹⁷⁾라면서 칭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난한 처지에 있던 사람이 발분하여 과거에 급제하여 자신의 처지를 변모시킨다는 것은 조선시대 상황에서 선망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실력을 갖춘다면 당장의 빈한 여부에 관계없이 미래의 성공을 꿈꿀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이 늑도록 과거에 집착하게 된 요인이 아닌가 한다.

한편, 가혹한 과거 공부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가 중이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도 전한다.

판서 권업은 아들을 가르치면서 과거과목을 엄격하게 세우고 가르칠 때에는 채찍질을 가하여 아프게 하였다. 아들이 성동이 못 되었을 때 아버지가 출타한 틈을 타 책을 덮고 놀러 나갔다가 문득 허물을 깨닫고 반드시 혹독한 꾸지람이 내릴 것을 두려워하여 도망 가버렸다. 여러 해 동안 살살이 찾았으나 끝내 찾을 수 없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결승 하나가 뜰에 서 있어, 그를 내려다보니 곧 아들이었다. 마침내 문을 닫고 앉아서 여종을 불러 쌀 다섯 되로 베주머니를 채우게 하고 10민전을 뜻아 그에게 주며 “너는 이미 삭발하였으니 남아 있는 父子의 인륜은 끊어졌다. 뒤에 다시는 오지 말라.” 하였다. 그 마침은 알지 못한다.¹⁸⁾

17) 2-106화 <崔暉瑞山寒族>. 斯可謂凡民之俊秀, 而雖無文王, 猶興者歟.

18) 1-177화 <權判書>. 權判書卜業 教誨其子, 嚴立科程, 痛加鞭策. 其子年未成童, 乘其父出, 掩卷遊戲, 忽覺督過, 必酷大懼而逃, 大索累歲, 終不能得. 後幾年, 有一乞僧立于庭, 諦視之, 乃其子也. 遂閉戶而坐, 招女奴, 使以五斗米盛布囊中, 挿十緡錢, 給之謂曰: “爾旣削髮, 遺親父子之倫絕矣, 後勿復來.” 莫知其所終.

아버지가 아들을 가혹하게 가르치는 내용으로써, 『청구야담』의 <結芳緣二八娘子>에서 채노인이 아들에게서 “일호라도 옳지 못한 점을 보면 일찍이 자애로 포용하는 법이 없이, 반드시 발가벗겨 노망대 속에 잡아 넣어 대들보에 달아매고 몽둥이로 두들기며 호령하는 것이었다.”¹⁹⁾를 연상케 한다. 과거에 합격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공부하는 것도 수월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요컨대, 『박소촌화』에는 과거시험에 출제된 과목, 시험방법, 시험제도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비롯하여 회방연과 생진계, 풍수, 과거 공부에 관련된 갖가지 사회풍습이 소개되어 있다. 내용의 깊이에는 한계가 있지만 다채로운 사연이 언급되어 있어 그 시대 과거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인물의 능력과 성품 제시

조선조 선비들은 대개 과거를 통해 관료로 진출하였으므로 과거담은 문인들의 일화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과거 관련 문인 일화는 실존 인물이 과거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연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²⁰⁾ 실존 인물의 구체적인 행위나 발언에 주목하였기 때문에 현실의 인물을 포착하되 그 생애 전체로 관심을 확대하기보다는 인물의 단면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대체로 인물의 능력, 품성, 신의 등이 보통 사람보다 두드러졌으므로 화제가 되고 전승되었는데,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 남다른 능력을 발휘한 인물의 일화이다. 여기에는 개인의 단일 능력이 발휘된 것과 여러 능력이 나열된 것 속에 과거담이 포함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1-122화의 조관빈, 2-96화의 신광수, 2-101화의 이이, 2-170화의 홍하적 등은 전자에 해당하며, 1-96화의 박성석, 1-105화의

19) 『청구야담』 <結芳緣二八娘子>(이우성·임형택 역편, 『이조한문단편집』中, 일조각, 1978, 4쪽)

20) 일화의 개념과 특징은 이강욱, 『조선시대 일화 연구』, 태학사, 1998을 참조.

채유후, 2-127화의 신유한, 2-173화의 이철환 등은 후자에 해당한다. 각각의 사례를 하나씩 들어 본다.

1-122화 <悔軒趙判書>는 조관빈의 일화이다. 24세에 급제하여 현달한 사람의 이야기를 부친으로부터 들은 조관빈이 자신은 23세에 문명을 떨칠 것이라고 장담한다. 그런데 조관빈은 산사에서 벗들과 공부한다고 하고서는 매일 떠들고 노는 바람에 한 편의 과체시도 짓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 하루는 부친이 공부한 것을 가져오라고 하자 밤사이에 과체표 10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더니 흠 잡을 곳 하나 없이 뛰어나 부친이 24세 등제를 허락하였다고 한다. 과체 형식의 표문을 작성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인데, 조관빈은 하룻밤만에 그것도 10수를 한꺼번에 작성하였고, 내용 또한 훌륭하였기에 부친으로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한편, 2-173화 <李哲煥>은 덕산인 이철환의 다양한 능력을 6개의 에피소드로 나열하였다. 그 내용은, ㉠과거에 나간다면 장원할 것이라고 이철환이 자부하자 친구가 ‘소 잡아 대접하기’를 내기하였고, 이철환이 장원하자, 친구는 그 약속을 지킴, ㉡구두지남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침과 약으로 병자를 치료하며, 나무 심고 채소밭 가꾸는 데 모두 두 방법이 있어 일은 반이지만 효과는 갑절임, ㉢도승과 불경의 오묘한 뜻을 논하여 중을 굴복시킴, ㉣천문을 관찰하여 임금(영조)의 죽음을 예언함, ㉤오이밭에 돌로써 팔진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송아지가 死門으로 들어가 나오지 못하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자 이를 구함, ㉥자신의 묘터를 예정하여 두었는데, 그가 죽자 묘터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그가 예정한 곳이 길지라는 사실이 드러남 등이다. 이 이야기에서 과거담은 ㉠에 해당한다. 역사적으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을 이동운은 그와 같은 지역에 거주한 까닭에 그의 출중한 능력과 됴됨이를 잘 알고 『박소촌화』에 수록하게 된 것이다. 일종의 이인에 해당하는 이철환은 세속적 욕심이 그다지 없었던 듯하다. 대과에 나가 충분히 합격할 능력을 갖추었지만, 초시에 합격하고 더 이상 과거에 뜻을 두지 않았다.

둘째, 과거에 임하여 의롭지 못함을 배척함으로써 정직하고 강직한 인품을 부각시킨 일화이다. 김헌행, 김우행 형제, 이담이 이에 해당한다. 2-167화 <金思伯憲行>에서 김헌행이 문장을 잘했으나 나이가 50에 이르도록 과거급제를 못한다. 성균관에 오른 친구가 은밀히 시험을 관장하는 사람에게 청축하여 그의 합격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김헌행은 이를 거절하였으며, 결국 늙어서 급제하고 벼슬하였다는 이야기이다. 2-168화 <金叔良友行>에서 김우행과 그 아우 김순행이 결성읍 감시에 응시하였다. 읍제가 숙량 형제의 합격을 도모하고자 몰래 그 친한 자를 시켜 숙량에게 편지를 보내니 집안 사람이 그 시권의 첫머리를 기록하여 보여 주었다. 숙량 형제는 선비된 자가 부정을 저지를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숙량은 뒤에 광흥봉사 벼슬을 지내고 죽었다. 2-169화 <李詹玉璫>에서 결성에 거주하는 이담이 한성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뒤에 시권을 찾으니 자기의 글이 아니었다. 비봉하면서 우연히 남의 시권과 합쳐진 까닭이었다. 이담은 예조에 알렸고 결국 합격이 취소되었다. 세 일화는 인물의 강직함이나 정직함을 압축적으로 제시하였다. 도덕적 생활에 충실한 구체적 인간의 단면을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산뜻한 인상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선비로서 마땅한 일이지만 속유로서 할 수 있는 자가 드물었기에 일화의 대상으로 수록된 것이다. 과거부정이 만연된 당시 현실에서 서술자는 정직하고 강직한 인물의 일화를 병치 배열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셋째, 과장에서 벗과의 신의나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부각시킨 일화이다. 2-97화 <李源萬>에서 이원만은 친구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과장에서 쓴 시권을 族人에게 주고 자신은 시권 제출을 포기하였으며, 2-98화 <尹光泰>에서 윤광태는 과장에서 필체가 좋은 조영승과 서로의 장점을 바꾸기로 약속하였는데, 조영승이 득의의 문장을 얻자 친구에게 시권을 양보하여 결국 조영승이 과거에 합격하였다는 내용이며, 2-99화 <淸州人禹致範>은 노모를 위해 과거에 응시한 거자에게 우

치범이 자신의 시권을 양보했으나 결국 두 사람 모두 합격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세 일화를 나란히 배치하여 타인에 대한 신의와 배려를 보인 주인공들의 따뜻한 인간적인 성품을 부각시키고 있다. 엄밀하게 따지면 세 사람은 과거에서 부정을 저질렀다. 그러나 서술자는 이들의 인품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찬양하고 있다. 이원만에 대해 “속유들이 자기를 이롭게 하고 남을 해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음을 보건대 그 고하가 어떠한가?”²¹⁾라면서 그 행위를 칭송하며, 윤광태와 조영승에 대해서는 “대개 과거의 욕심은 사람의 뜻을 뺏는 데 더 심해진다. 그래서 속언에는 ‘試場에 들어가면 사람의 본심을 시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윤과 조 두 사람 같은 경우 시속의 투를 벗어났다고 할 것이다.”²²⁾라 하였으며, 우치범에 대해서는 “과거 욕심은 사람마다 같은데 이러한 높은 의리는 세상에 드물다.”²³⁾고 하였다. 서술자는 말미에 공통적으로 논평을 달고 상반되는 사회상을 언급함으로써 이들의 인품이 더욱 부각되게 하였다.

이동윤이 과거담 문인 일화의 주인공으로 삼은 인물은 대개 자신과 동일 학맥이거나 거주지가 유사한 지역에서 선택하였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그 존재의의를 부각시킨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야담 수준으로까지 나아간 일화도 더러 보인다. 곡절 많은 영남 선비 이야기를 다룬 3-149화, 길몽 급제한 황일하를 다룬 3-206화, 김응순이 영동 지방으로 암행하여 인재를 뽑은 3-213화 등은 야담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는 작품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가 많지 않으나 대체로 서사성을 갖추고 있기에 야담으로 정착되거나 발전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목할 만하다. 3-149화 <肅廟之世嶺南一儒>를 예로 든다. 영유(영남의 한 선비)가 주인공인 이 이야기에서 전반부에는 영유와 윤순·서

21) 2-97화 <李源萬>. 其視俗儒苟利於己不顧害人者, 其高下何如哉. 此余所目見者也.

22) 2-98화 <尹光泰>. 蓋科舉之欲, 甚於奪人之志. 故諺云, 入試場則可驗人之本心, 若尹趙兩人, 可謂能脫俗套者哉!

23) 2-99화 <淸州人禹致範>. 科欲人之所同, 此等高義, 世所罕有.

평균 사이의 교유 및 과장에서의 일화가 서술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농암 아들의 초상에서 보여 준 영유의 기이한 행동이 나타나 있다. 전반부에서 영유는 글 잘하고 글씨 잘 쓰는 윤순과 서명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깊은 교유를 맺는다. 계획된 접근과 의도된 행동, 꺾병으로 친구들이 과거문장을 대작한 끝에 합격하고서도 도리어 친구를 꾸짖고 절교 선언을 하며 사라지는 장면에서 극적 반전을 보인다. 이와 같은 면모는 영유의 행동에 의아함을 가지면서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정서적 긴장감을 유발하는 수준 높은 서술이라 할 것이다. 후반부에도 영유의 기이한 행동은 계속된다. 특히 농암 김창협이라는 당대 거유의 인물을 두고 벌이는 영유의 행동은 당시 문인들에게 놀라움 그 자체였을 것이다. 그렇기에 윤순 등은 영유를 추천하여 벼슬에 올렸지만 영유는 이마저 사양하고 사라진다. 이야기 말미에 영남안찰사가 된 윤순이 영유를 방문하고 서야 비로소 지금까지 자신이 영유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다. 인물의 익명성, 사건 구성 방식, 인물의 성격 창조, 주제의 형상화 등에 있어서 서사성과 독창성이 두드러졌다²⁴⁾고 할 만큼 이 이야기는 일정 수준을 갖춘 야담화된 내용이라 할 것이다. 이동윤은 작품의 말미에서 “내가 일찍이 영유가 과거와 관료에 곡절이 있다고 들었는데 황당한 말이라 여겼더니, 다시 윤씨 집안의 사돈을 통해 그도 영남을 방문하였다가 들었다고 해 황당무계한 말만은 아니라 여겨 우선 기록해 둔다.”²⁵⁾고 하였다.

요컨대, 과거 관련 문인 일화의 주인공은 능력이나 인품에서 뛰어난 인물이다.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음으로써 그 존재의의를 부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대체로 이동윤과 같은 학맥에 속하거나 거주지가 유사한 인물이 많았기에 이들을 긍정적으로 부각시켜 놓은 것이다. 일부 일화는 야담으로 발전할 면모를 갖추고 있어, 일화에서 야담으로의 변모를 파악

24) 조선옥, 앞의 논문, 140-142쪽 참조.

25) 3-149화 <肅廟之世嶺南一儒>. 余嘗聞嶺儒科宦委折, 疑以齊東之說, 復因尹家姻婭, 得聞其訪于嶺南, 似非無稽之言, 故記之.

하는데 유용한 것이라 하겠다.

3) 과거부정과 폐단의 지적

조선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등용하는 과거시험은 국가기강과 관련되었기에 국초부터 그 부정을 엄격하게 단속하여 비교적 공정하게 운영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국가의 기강이 해이해지면서 과거 운영에서 갖가지 부정행위가 나타났다. 개인이나 가문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크게 얽힌 과거 집념 때문에 인간악으로서의 부정은 개입되기 쉬웠을 것이며, 때로는 제도의 결함이나 악의에서 저질러진 부정 등 조선 시대의 과거에는 자칫하면 잡음을 일으키게 할 소지는 충분하였다²⁶⁾. 이동운은 『박소촌화』 곳곳에 과거부정과 폐단을 지적해 두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그 실태를 살펴본다.

첫째, 과문 절도 행위에 관련된 이야기이다. 2-100화, 3-68화, 3-70화가 이에 속한다. 2-100화 <有鄉客一人>은 이동운이 자신의 외종인 김낙수로부터 들은 과문 절도 이야기이다. 어떤 명가 소년이 과장에서 타인의 시권을 훔쳐 베껴 쓰고 높은 점수로 합격하였으나 이듬해 요절하였다는 내용이다. 서술자는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의 낙담한 심정을 동정하고, 요행히 합격한 인물은 천도의 보응으로 요절하였다는 도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3-68화 <李麟徵>은 두 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었다. 전반부는 뒤바뀐 답안지 때문에 요행히 벼슬한 이인징 이야기이고, 후반부는 이동옥 시권 절도 이야기이다.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동옥은 동명이인이다. 한 명은 이동운의 재종숙이고, 다른 한 명은 신분이 확인되지 않으나 시권 절도범이다. 재종숙 이동옥은 신유년(1741) 감체에 수석을 하였고, 절도범 이동옥은 기묘년(1759)에 남의 시권을 훔쳐 3등으로 입격했다. 정경인이라는 자가 입격한 글을 살펴보고 그것이 자신의 글이

26) 이원호, 「조선시대 과거 물의에 관하여」, 『현상과 인식』 3권 1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979, 188-189쪽.

라고 예조에 알렸고, 예조에서는 과적율을 적용하여 한밤중에 재종숙 집에 이동옥을 잡으러 온다. 그런데 재종숙 이동옥은 이미 임신년(1752)에 홍진으로 사망한 뒤였다. 만약 재종숙 이동옥이 살아 있었다라면 아마도 횡액을 면치 못했으리라는 것이 서술자의 입장이다.

3-70화 <肅廟己卯增廣>은 환피봉적으로 널리 알려진 숙종 25년(1699)에 발생한 기묘과옥에 얽힌 이야기이다.

숙종 기묘년 증광사에서 李聖輝·송성 등이 답안지를 바꾸어 급제를 하였다가 겨우 이를 유가를 하고서 발각되어 과옥이 크게 일어났다. 성휘 등은 관노가 되고 모든 방이 삭제되었다. … 흑자는 말하기를, 성휘가 과문을 도둑질한 것은 그 처가 부추긴 것이라고 한다. 대개 그 처가는 문벌이 있었는데 그 아내는 그가 유생임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를 무시하였다. 참봉에 제수되어 사람들이 이참봉댁이라고 부르자 그 처가 그에게 화를 내면서 “내 집은 일찍이 수찬댁, 교리댁이라고 들었지, 한 번도 참봉댁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는 곧 서얼이란 말인가. 참봉의 관직이 무엇이란 말이나?”고 하였다. 성휘가 분해하며 마침내 적과를 도모하였다.²⁷⁾

기묘과옥은 출제와 채점을 맡은 고시관으로부터 관리업무, 진행요원, 수험생인 거자 등에 이르기까지 과거시험에 관계하는 모든 유형의 사람들이 연루된 부정의 종합판과 같은 사건이었다.²⁸⁾ 가장 공정해야 할 과거시험에 금력에 눈이 어두워 각자의 소임을 수행하지 않았기에, 세간에서는 ‘어사화냐 금은화냐(御史花耶 金銀花耶)’와 같은 조롱어린 동요가

27) 3-70화 <肅廟己卯增廣>. 肅廟己卯增廣, 李聖輝·宋晟等諸人, 換封登第, 纔得遊街兩日而見覺, 大起科獄. 聖輝等爲官奴, 削其全榜. … 或曰聖輝之賊科, 其妻激之. 蓋其妻家簪組燁赫, 其妻恥其爲儒生而侮之, 及除參奉, 人稱李參奉宅, 其妻怒之曰: “吾家曾聞修撰宅校理宅, 未嘗聞參奉宅, 此乃庶孽耶? 參奉之官何哉?” 聖輝忿然, 遂圖賊科.

28) 기묘과옥에 대해서는 차미희, 앞의 책, 112-153쪽 및 우인수, 「조선 숙종조 과거 부정의 실상과 그 대응책」, 『한국사연구』 제130호, 한국사연구회, 2005, 87-97쪽 참조.

경향에 과다했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이성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과거에 임한 것이 그 처의 무시 때문이다’라는 심리적 요인을 지적한 대목이다. 과거, 그것도 대과에 급제하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제대로 하지 않는 세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 하겠다. 이런 세대에서 거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을 일삼았으며, 그 결과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것이다.

둘째, 매문 행위 및 대리담안 작성과 관련된 폐단을 지적한 내용이다. 권세가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재창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이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때로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일부 권세가는 자신의 자제를 합격시키기 위하여 글을 잘 짓거나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을 식객으로 고용하여 부정을 일삼기도 하였다.

영조 중반에 신억·남옥·박사호 삼인은 부와 표를 짓는데 능하여 卿相의 자제들을 위하여 초빙되었다. 판서 원경하가 매문을 비판하며 임금께 아뢰었다. “신억·남옥·박사호는 본디 문장을 파는 자들로써 방이 난 후에 시끄러운 소문이 낭자합니다. 숙종시절 한순석, 임후를 유배시킨 사실과 같이 이들 세 사람을 먼 곳으로 유배보내길 청합니다.” 임금께서 허락하였다. 남옥은 판서 유엄의 아들 성제의 집 식객이었으나 야반도주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유씨 집에서 불려도 올라오지 않아 혼자만 면할 수 있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원대감의 아들 의손이 불려들임에 실패하였던 까닭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도 한다.²⁹⁾

신억, 남옥, 박사호 등은 과문을 전문적으로 익혀 경상의 자제들을 가르쳤거나, 이들을 위해 과문을 대신 작성하였던 무리였을 것이다. 아마

29) 2-44화 <英廟中年>. 英廟中年, 有申嶷·南玉·朴師灝三人, 以能於賦表, 爲卿相子弟所羅致. 元判書景夏白上曰: “申嶷·南玉·朴師灝, 素稱賣文者, 而榜後囂囂之說狼藉, 請依先朝竄韓舜錫·任詡例, 此三人并遠配” 上允之. 南玉客于判書柳儼子聖濟, 所半夜迹身歸鄉, 柳家謂以初不上來, 是以獨免. 或云元台子義孫, 欲羅致而未果, 故有此事.

도 이옥의 <유광억전>에 등장하는 유광억과 같은 부류일 것이다. 원경하는 과장에서 글을 파는 이들의 유배를 청하여 임금의 허락을 받는다. 그런데 인용문 말미에 원경하가 상소를 올린 이유가 자기 아들을 위해 신역 등을 불렀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유배시켰다는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권세가들은 자제의 과거합격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필가를 찾았으며, 낙척한 문필가는 경제적 목적이나 권력층의 비호를 얻기 위하여 권세가에게 자신의 재주를 파는 것이 하나의 세태가 되었던 모양이다. 권세가들은 문필가를 자기의 식객으로 거느리거나 때로는 매문행위를 강요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서울과 달리 지방에서는 과거에 대비하여 과문을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사람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진계까지 조직하였다. 앞서 풍속에서 사례로 든 2-42화 <或曰遐方有生進稷>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한편, 3-149화 <肅廟之世嶺南一儒>는 과장에서 친구들이 합작하여 과문을 대신 작성하여 제출한 이야기이다. 『박소춘화』에는 부정을 기획하였건 그렇지 않았건 간에 과장에서 과문을 보여주거나 상대의 과문을 보고 베낀 사례의 이야기가 곳곳에 보인다. 따라서 지방의 향시에서는 대리인을 고용하거나 답안지를 대리 작성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할 것이다.

셋째, 학연과 지연 등 정실관계로 합격을 도와주거나 방조한 부정 사례이다. 2-35화 <列朝科擧>는 학연과 지연에 의한 과거 합격 방조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상국 민응수의 아들 백창은 문명이 없는데 남성시에 응과하여 낙방하였다. 그런데 참관 정언섭이 민씨 사람인 까닭에 판서 이성룡과 의논하여 낙권 중에서 백창의 문권을 찾아 법식을 고쳐 장원으로 삼았다. 과거 합격이 人望이 아니면 어려워졌고, 대과나 소과 모두 사사로이 마음대로 함이 있었다고 비판하면서 당시 ‘은진사’니 ‘전급제’니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우스개가 되었고, 그때 사람이 지은 과탄가가 부녀자와 아이들에게 전하여 읊는 바가 되었다고 한다.³⁰⁾ 실제로 속중

30) 2-35화 <列朝科擧>. 大抵, 國朝以來, 生進壯元爲極選, 而乃率榜下多士, 苟非人

실록에는 ‘어사화냐? 금은화냐?’[御賜花耶 金銀花耶]하는 동요 및 ‘백지로 낸 시험지에 홍패지(紅牌紙) 나오니, 머리에 어사화 꽃고 길에서 쳐다보는 이에게 으스대네. 도적의 소굴에서 밤중에 휘파람 소리 들리니, 이 무리들 또한 청렴하다 말할까?’와 같은 시가 향간에 전하여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³¹⁾ 비교적 공정하고 엄격하게 시행되던 과거가 조선후기에 이르러 점점 폐단이 누적되었고, 동요나 시로써 전국에 풍자되기에 이를 만큼 부정의 정도가 심각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물론 과거 부정이나 폐단을 막기 위하여 국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또 고관에 따라 도덕적으로 엄격하게 시행한 사례가 없지 않지만,³²⁾ 과거에서의 폐단이나 문제점은 계속해서 지적되는 실정이었다.

이밖에도 『박소촌화』에서 과거부정이나 폐단을 다룬 것으로는 문망과 지별 위주로 생원·진사의 장원을 선발하던 폐단(2-38화), 지역 차별과 별시의 폐해(2-40화), 과장의 문란과 뇌물 수수(2-43화), 과거 답안지가 특정 인물을 비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2-46화), 족보를 사칭하고 과거에 급제하였다가 발각되어 삭탈관직되고 유배간 엄택주 이야기(2-81화), 남인을 탄압하기 위하여 사적으로 향시를 시행하여 과거를 정쟁의 수단으로 담은 정익하 이야기(2-188화)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이동윤은 과문절도, 매문, 대리답안작성, 정실관계로 부정합격을 기획하는 행위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과거부정과 폐단의 사례를 지적하였다. 비록 과거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나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지만 과거부정에 얽힌 다양한 사례를 남김으로써 후세의 경계를 삼은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과거부정에 관한 내용이 많다는 것은 그만

望莫敢用, 情至是公議竟屈, 大小科并有徇私之, 名銀進士·錢及第之說, 爲人笑罔, 時人作科歎歌, 爲婦孺所傳誦.

31) 숙종 34권, 26년(1700) 1월 20일 2번째 기사 참조.

32) 1-150화 <亂旣平設庭試>가 이에 해당한다. 영조 신축년 증광시에서 오원이 급제한 뒤에 고관이었던 황재에게 인사를 갔다. 이야기가 오가던 중 황재는 오원과 인척 관계인 것을 알았고, 상피법에 저촉되는 인사인지라 오원을 탈락시켰다. 오원은 다시 등제하여 문형에 올랐다는 이야기이다.

큼 과거가 사회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과열된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4. 『박소촌화』 소재 과거담의 의의와 한계

지금까지 『박소촌화』 소재 과거담의 특징을 과거제도 및 풍습, 문인의 능력이나 인품을 다룬 일화, 과거부정이나 폐단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박소촌화』에서 과거담은 모자이크 조각과 같은 사건, 일화, 이야기들이 단편적으로 존재하므로 과거의 실상을 알기에는 턱없이 부족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이런 규모의 미미함은 예외적인 특이한 현상은 아니다. 이러한 과거담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다른 문헌의 과거담과 비교하여 그 의의와 한계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 보기로 한다.

먼저, 『박소촌화』와 문헌설화집과의 비교이다.³³⁾ 문헌설화집에 수록된 과거담은 서사적인 짜임과 이야기를 갖춘 정선된 결과물이기에 단순 비교하는 것이 곤란하지만 『박소촌화』의 과거담은 이전의 문헌 설화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박소촌화』를 『조선조문헌설화집요』(I)(II) 및 『한국문헌설화』 제2책에 실려 있는 과거담과 비교하였을 때, 성종이 미행을 하다가 인재를 발견하고 발탁하였다는 3-196화 <成廟朝有一士人>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이야기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그만큼 『박소촌화』 소재 과거담은 이전의 문헌 설화나 야담집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것이라는 점에서 독자성을 지닌다고 하겠다.³⁴⁾ 당시 과거시험에 응시했거나 과거와 직간접 관련 있는 사람의 언

33) 여기서는 서대석 편저, 『조선조문헌설화집요』(I)(II), 집문당, 1991-1992 및 김현룡 편저, 『한국문헌설화』 제2책, 건국대학교출판부, 1998에 수록된 과거 이야기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다.

34) 독특함이 질적 가치를 담보하는 기준이 아님은 물론이다. 문헌설화집과 『박소촌화』를 단순 대비해서는 그 특질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분류의 기준을

술을 통해 비교적 근거리에서 이야기가 전승되었고 사실에 바탕을 두었기에 독창적인 것이 아닌가 한다. 근거리에서 바라본 것이므로 제도, 풍속, 일화, 과거부정 등에서 대체로 실명을 바탕으로 한 사실적인 이야기가 많으며, 내용 또한 구체적인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과거시험을 치른 경험이 있는 이동윤은 자신의 경험담을 비롯하여 가족, 친인척, 師友, 지역 문인들의 과거 이야기를 직간접으로 수용한 것이기에 구체적인 전승 경로를 알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동시대 인물이 남긴 다른 과거담과의 비교이다. 과거담에 한정할 경우 무명자 윤기(尹祁, 1741-1826)는 이동윤과 여러모로 비교가 가능하다.³⁵⁾ 생몰연대를 고려할 때 두 사람은 주로 영조시대를 전후하여 활동하였으며, 경제기반에서 변변한 유산조차 물려받지 못한 한미한 인물이다. 두 사람은 평생을 독서로 생활하였으며 한시를 비롯하여 많은 산문과 과거에 관한 다수의 글을 남긴 공통점이 있다.³⁶⁾ 그러나 당색, 거주지, 벼슬살이의 여부 등에서 두 사람의 차이가 있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태도에서도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먼저, 과거라는 소재를 선택하여 글쓰기를 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박소촌화』에서는 잡록 형태의 과거담이 대부분이다. 앞의 <표>에 거론된 대부분의 과거 관련담은 특별한 형식이 없다. 이동윤이 경험하였거나 견문한 내용을 자유롭게 서술한 것이다. 윤기는 한시를 비롯하여 論, 說, 記, 疏, 策, 閒話 등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문체를 선택한다는 것은 글의 방향을 암시한다고 할 것이다. 이동윤이 글쓰기 형식에 큰 제약이 없는 잡록 형태의 글을 자유롭게 서술하였다면, 윤기는 논설 위주의 형식을 취

정하고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추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 35) 윤기에 대해서는 김병건, 「무명자 윤기의 사상과 문학」,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4 및 김철조, 「과거장의 안과 밖 -18세기 한 지식인이 본 과장의 백태-」, 『한국과거문화의 새로운 조명(1)』, 제104차 대동한문학회 전국학술대회, 2013 참조.
- 36) 윤기의 『無名子集』에는 과거에 대한 수많은 한시를 비롯하여 「論科學」, 「科說」, 「後科說」, 「記甲申科事」, 「記世態」, 「記驚」, 「峽囊閒事」, 「壬申應旨疏」 등 과거 관련 산문기록이 풍성한 편이다.

하여 논증적이고 분석적인 글쓰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야기 중심인 서사적인 글은 윤기보다는 이동윤의 글쓰기 형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표>에 제시하였던 문인 일화는 거의 모두가 서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으며, 일화 수준에서 야담으로까지 나아간 것은 윤기의 과거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내용에서도 몇 가지 차이를 지닌다. 이동윤은 과거에 대하여 제도, 풍속, 일화, 야담, 과거부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게 사실에 입각하여 서술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나 풍습 등을 기록으로 남겨 부각시킴으로써 독창적이라는 면모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동윤 과거담의 특징은 다양성, 사실성, 독창성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윤기의 과거담은 이동윤 만큼 다양하지는 않으나 과거에 대하여 집중적이고 분석적이며 체계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과거폐단이나 부정을 두 사람 모두 다루고 있지만 이동윤은 현상을 제시하여 독자가 판단하게 하고 있지만, 윤기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박소춘화』 소재 과거담은 단편적이기는 하나 조선조 선비들의 과거에 대한 생활사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동윤은 ‘과거’라는 주제의 글을 지속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쓴 것은 아니다. 『박소춘화』에 수록된 과거담은 단편적이면서 분절된 기록에 가깝다. 이 책에는 수많은 인물이 등장한다. 역사에 널리 알려진 인물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 존재가 무시되었던 인물이라 할 것이다. 이들은 대체로 18세기를 전후하여 조선의 일상생활 현장이나 정치 공간에서 의미있는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다. 이들이 남긴 그저 평범하기만 해보이는 자료라든가 그들이 남긴 드문 흔적은 역사, 특히 구체적인 생활사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³⁷⁾ 왜냐하면 보통 인간들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

37) 이러한 측면은 미시사와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미시사는 구체적 개인이라는 창을 통해 역사적 리얼리티의 복잡 미묘한 관계망을 이해하고자 하는

과거와 관련되는 의미있는 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보통의 범주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행로야말로 생활사에서는 깊이 있는 연구의 대상이 될 만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³⁸⁾ 예컨대 숙종 때 발생한 기묘과옥에서 이성휘가 저지른 과거부정, 지방에서 조직된 ‘생진계’ 같은 것은 지배자의 입장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사료의 양적 측면에서는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다. 얼핏 보기에 이성휘의 행위나 생진계 같은 조직은 이례적이지만 행위자의 입장에서는 당시 과거를 통하여 관료로 진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의 일반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보편적인 입장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휘라는 한 개인의 행위나 생진계라는 한 조직은 아주 사소해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작은 틈새 사이로 드러나는 일탈적 행위로부터 과거를 둘러싼 보다 심층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박소춘화』 소재 과거담은 개인에게는 특수한 경험이나 개별적인 사건에 해당하지만, 이것이 모여 사회의 보편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수하고도 일회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러한 개인의 경험과 사건들이 모여 과거라는 대상의 성격과 특성을 보다 다각도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의를 가진 점도 있지만 『박소춘화』 과거담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포함하고 있다. 『박소춘화』에 수록된 과거담이 양적으로는 많지만, 과거가 운영되던 당시의 사회적 기능, 특징, 영향, 폐단 등 심도있는 주장이나 분석은 부족한 편이다. 게다가 분량이 비교적 짧은 편이어서 이동운의 주장이 심도있게 논의된 수준은 아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동운은 대체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일부 작품에서는 노론 편향의 당파성을 가지고 서술하는 경우가 있다. 문인 일화의 경우 노론이나 자신의 학맥에 관련 있는 인물은 인정이나 의리

시도라 할 수 있다. 광차섭 엮음, 『미시사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2000, 14쪽.
38) 위르겐 슐름봄 지음·백승중 옮김, 『미시사의 즐거움』, 돌베개, 2003, 247-254쪽.

또는 인간적인 측오지심 때문에 자파에게 유리하게 서술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럴 경우 서술태도나 공정성의 시각 확보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 소재나 사건을 다룬 주변 자료를 통해 이동운의 서술태도를 세밀히 살펴보거나, 그 이면의 숨겨진 의미나 전후맥락을 고려하여 당시 과거에 대한 시각을 역으로 추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문인의 인간성을 부각시킨 의도로 작품을 서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의도하지 않은 측면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는 작품이 더러 존재한다. 예컨대, 과장에서 답안지를 보여 준 행위가 그 문인의 인간적인 모습을 부각시켰을지 몰라도 엄밀히 본다면 과장에서 부정을 행한 것임은 틀림없다 할 것이다. 이런 점은 과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과거담에 한정할 경우 서사구조를 갖춘 흥미로운 이야기가 부족한 것도 아쉬운 점에 속한다 할 것이다. 아마도 사실과 교훈적인 입장을 중시하는 작가적인 태도와 더불어 과거라는 시험제도가 조선의 일상 생활 공간에서 현재 진행 중인 강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허구성이 강한 서사물로 발전하기가 어렵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다.

5. 맺음말

이 글은 『박소춘화』 소재 과거담의 특징과 의미를 밝히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이동운은 과거시험을 치른 직접 경험에서부터 집안의 친인척, 노론 학맥의 문인들, 문헌 및 구전 등으로 수용한 것에 이르기까지 과거에 관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다양한 전승경로를 통해 『박소춘화』에 수록하였다.

『박소춘화』에는 과거시험의 출제과목, 시험방법, 시험제도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비롯하여 회방연과 생진계, 풍수, 과거 공부에 관련된 갖가

지 사회풍습이 소개되어 있다. 내용의 깊이에 한계는 있지만 다채로운 사연이 언급되어 있어 그 시대 과거문화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과거담 문인 일화의 주인공은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음으로써 그 존재의의를 부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체로 이동운과 같은 학맥에 속하거나 거주지가 유사한 인물이 많았기에 이들을 긍정적으로 부각시켜 놓은 것이다. 일부 일화는 야담으로 발전할 면모를 갖추고 있어, 일화에서 야담으로의 변모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동운은 과문절도, 매문, 대리담 안작성, 정실관계로 부정합격을 기획하는 행위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과거부정과 폐단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비록 과거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나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지만 과거부정에 얽힌 다양한 사례를 남김으로써 후세의 경계를 삼은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동운이 기록한 과거담은 이전의 문헌 설화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시대 윤기가 남긴 과거담과 비교할 때 내용의 깊이나 짜임새는 부족하지만 다양성과 서사적 이야기를 갖춘 점이 특징이라 할 것이다. 또한 『박소춘화』 소재 과거담은 조선조 선비들의 과거에 대한 미시생활사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 글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박소춘화』 소재 과거담을 부각시키고 그 특징을 검토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다른 인물이 남긴 과거담과의 비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지역과 당파가 서로 다른 인물이 남긴 과거 관련 자료들을 서로 대비하여 과거담 전체에서 차지하는 이동운 과거담의 위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이것이 조선조 과거문화를 이해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후속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1. 자료

이동윤, 『박소촌화』, 서울대 규장각소장본.

이동윤, 『민재유고』, 후손가장본.

김현룡 편저, 『한국문헌설화』 제2책, 건국대학교출판부, 1998.

서대석 편저, 『조선조문헌설화집요』(Ⅰ)(Ⅱ), 집문당, 1991-1992.

2. 논저

곽차섭 엮음, 『미시사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2000, 1-449쪽.

김병건, 「무명자 윤기의 사상과 문학」,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4, 1-289쪽.

우인수, 「조선 숙종조 과거 부정의 실상과 그 대응책」, 『한국사연구』 제130호, 한국사연구회, 2005, 83-121쪽.

이강옥, 『조선시대 일화 연구』, 대학사, 1998, 1-412쪽.

이원호, 「조선시대 과거 물의에 관하여」, 『현상과 인식』 3권 1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979, 175-197쪽.

임완혁, 「서사문 속의 과거 이야기 -궁핍한 유생의 고군분투기-」, 제104차 대동한문학회 전국학술대회, 2013, 145-181쪽.

조선옥, 『『박소촌화』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2008, 1-186쪽.

차미희, 『조선시대 과거시험과 유생의 삶』, 이화여대출판부, 2012, 1-351쪽.

황위주, 「과거시험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 과거문화의 새로운 조명(1)』, 제104차 대동한문학회 전국학술대회, 2013, 11-34쪽.

위르겐 슐툼봄 지음·백승중 옮김, 『미시사의 즐거움』, 돌베개, 2003, 1-260쪽.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the
state examination stories in
『ParkSoChoneWha』

Lee, Byong-Jik*

This thesis is to aim at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the state examination stories in 『ParkSoChoneWha』.

Lee DongYoon wrote many stories in 『ParkSoChoneWha』, including the experience of the state examination, the literary men in the same member, and documentary records, and transmission by mouth.

There were the test subjects of the state examination, the method of examination, and the changes of examination system in 『ParkSoChoneWha』. Also, it introduced a variety of social customs that had something to do with HoeBangYeon, assembly meeting, SangJinGae, geomancy, and the state examination. These stories eventually helped us understand social culture about the state examination in that age. The leading characters in the story had good manners and abilities, but they were not historically famous people. It contributed to emerging the existence meaning. Also, Lee DongYoon illustrated a number of examination absurdity and the vice cases, which were stealing, drawing up the answering sheet by other people, and passing the examination dishonestly. Since these stories taught a

* Busan Geumseong High School teacher.

good lesson to the following generation, this writing seemed to be highly evaluated.

The state examination stories written by Lee DongYoon had very peculiar characters that couldn't be found in the earlier books. Compared to the stories by Yoon Gee, these stories included the diversity and epic stories. The state examination in 『ParkSoChoneWha』 had particularly good points in terms of revealing a way of life by the elite groups in Chosun Dynasty era.

Key Words : the state examination, the state examination story, ParkSoChoneWha, Lee DongYoon, YoonGee, life history.

■ 논문접수 : 2013년 6월 30일

■ 심사완료 : 2013년 7월 20일

■ 게재확정 : 2013년 8월 5일